

# 빛가람 혁신도시 10년...인구 4만명 자족도시 '눈앞'

###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 안착...에너지신산업 거점 급부상 상주 인구 10배 이상 증가...의료·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 10년을 맞았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때 빛가람혁신도시는 16개 기관의 이전으로 정주인구가 줄곧 늘면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했다. 특히 한전과 한전공대 등이 자리해 국내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월 전남도 혁신도시추진발전단과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개발된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우정사

업정보센터를 시작으로 16개 기관들의 이전이 시작됐다. 이전 기관은 중앙부처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3곳,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전KPS, 한전KDN 등 3곳이다. 준정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곳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곳이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부지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 약 736만1000㎡(223만평)에 달한다. 지난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최종 발표되고 그해 11월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총 1조4175억원(용지비 4499억원·조성비 96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16개 공공기관(7698명)이 자리를 틀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10배 넘게 늘어 4만명에 가까워졌다. 지난 2014년 3895명이던 혁신도시 인구는 이듬해 1만2452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만1405명(2016년)→2만8266명(2017년)→3만819명(2018년)→3만2478명(2019년)→3만6284명(2020년)→3만9246명(2021년)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현재 3만9459명을 기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예정된 1만7920호 중 1만5634호가 공급을 완료했고, 행정복지센터 1개, 파출소 1개, 소방서 1개, 우체국 1개 등의 공공시설이 신설됐다. 교육여건도 광역시 못지않은데,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자리 잡았다. 유치원도 6곳, 사립 1곳 등 7곳이 운영 중이다. 편의시설도 병(의)원 34곳, 약국 13곳, 마트 및 편의점 97곳, 학원 184곳, 음식점 688곳, 문화시설

31곳, 은행 28곳으로 정주여건이 꽤 높아졌다. 정주민들의 교통여건도 좋아졌다. 나주역은 하루에 24회, 송정역은 43회 등 시내버스 13개 노선에서 총 395회가 운행되고 있다. 기관들의 이전으로 신규 혹은 기존 관련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도 빛가람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전남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컨택 등이 들어서며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혁신의 에너지' 광주·전남 새천년 글로벌 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자족형 독립신도시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7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이정복 사장 직무대행 등 임직원들이 전국 15개 지역본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한전 제공>

## 한전 등 전력 그룹사 폭염·태풍 대비 안정적 전력 공급 총력

### 긴급 화상회의 전력 설비 등 점검

한국전력은 지난 7일 15개 지역본부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량 증가와 태풍 북상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와 전력설비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두번째 주의 전력 공급능력은 104GW, 전력수요는 92.9GW 수준으로 전망되며, 예비력 10GW 이상으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로 전력수요

이 급증하고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 등 기상 변수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수요 담당부서 이외에 배전과 송·변전 전력설비 운영 부서 등이 회의에 참여해 폭염과 태풍 대비 전력설비 사전 점검 강화와, 근로자들의 휴식기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한전KPS도 같은날 '2023년 여름철 전력수급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폭염과, 태풍 관련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KPS는 화력·원자력·양수 등 발전 및 송전 설비의

고장·정지 예방활동과 긴급복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정비 인력의 안전관리 상황도 살폈다. KPS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64개 사업장 내 735명의 긴급정비 인력이 24시간 순환 대기 중이다. 이정복 한전 사장 직무대행은 "계속되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여름철 기상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비상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이라며 "사전 설비 점검과 신속한 고장복구 대응체계 유지,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에너지공과대-해원엠에스씨 발전유리 등 기술 개발 협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난 7일 해원엠에스씨(주) '발전유리 및 슬래그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발전유리 사업화 협력 ▲슬래그 재활용 기술 사업화 협력 ▲슬래그 재활용 기술 및 발전유리 기술 등 공동연구 과제 발굴·수행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원엠에스씨와 한국에너지공과대는 발전유리 및 슬래그 재활용 기술의 연구협력 및 검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RE 100 달성을 위한 발전유리 및 슬래그 재활용 기술의 응용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사학연금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마무리

### 여름학기 시민 340명 참여 호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여름학기를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도란도란 클래스는 지역 내 우수한 소상공인 문화강좌를 소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도란도란 클래스 여름학기는 '빛가람 ESG 협의회' 기관 중 6개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나주시, 전남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도란도란 클래스는 체계적인 구성과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도를 인정받아 올해 초 나주시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지자체-이전공공기관 연계 롤모델 사업'으로 선정됐다. 여름학기는 향수·수분크림 만들기, 라탄 공예품 만들기, 드림백 만들기, 마크라메 활용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 구성됐으며, 약 34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빛가람 ESG 협의회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 만큼 2023년 도란도란클래스 여름학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도란도란 클래스를 이어나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장바구니 부담 덜어줄 레시피 추천해드려요

### aT, 농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0일 전과 비교해 저렴한 농산물로 요리가능한 인기 레시피 추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레시피 추천 서비스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카덱스(KADX)와 '만개의 레시피'와 손잡고 선보이는데, 8월부터 만개의 레시피 모바일 앱과 웹(10000recipe.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앱을 설치하고 푸시 알림을 설정하면 농산물 가격 등 관련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레시피 추천 서비스는 지난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시범 운영기간에 방문자 수가 283만 명이 접속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 '맛있는 한 끼'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도시락·간식·술안주 등에 활용 가능한 맞춤 레시피를 추천하며, 재료가 되는 농산물 구매까지 지원한다.

또 카덱스는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데이터로 차리는 밥상'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며,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 ▲농수축산물 일자별 도소매 가격 ▲전체 레시피 데이터 ▲농산물 가격과 레시피 융합데이터 3종을 개방·판매할 예정이다. 이원기 aT 디지털혁신처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알뜰한 소비를, 농업인은 가격하락 시기에 농산물 판촉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농식품 데이터가 모이는 카덱스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